



# 중국리포트

## KMI CHINA REPORT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중국연구센터 (Korea Maritime Institute China Research Center)  
 中国上海市 长宁区 遵义路 100号 南丰城 A-1803  
 Tel. +86-21-6090-0395~6, Fax. +86-21-6090-0397



제19-20호  
 2019년 10월 31일

### CONTENTS

- ▶ 통계로 보는 중국 : 중국 18개 자무구 지역의 GDP 현황
- ▶ 이슈 포커스 : 2019년 중국 자무구 해운-항만-물류 동향 [1] - 지역 범위 확대와 네거티브 리스트 변화를 중심으로
- ▶ 동향 & 뉴스

■ 중국 18개 자유무역시범구 지역 GDP 및 1인당 GDP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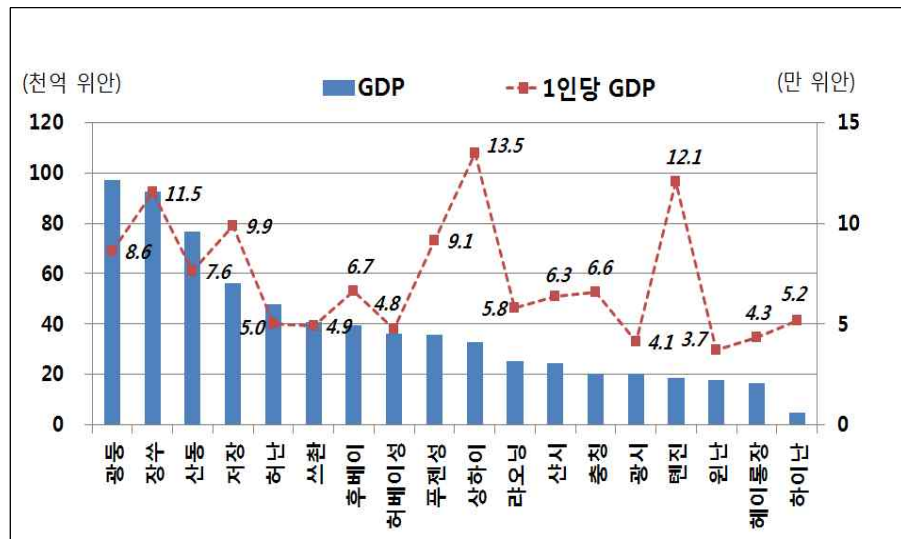
No.	지역	GDP (억 위안)	1인당GDP (위안)
1	광둥	97,278	86,412
2	장쑤	92,595	115,168
3	산둥	76,470	76,267
4	저장	56,197	98,643
5	허난	48,056	50,152
6	쓰촨	40,678	48,883
7	후베이	39,367	66,532
8	허베이성	36,010	47,772
9	푸젠성	35,804	91,197
10	상하이	32,680	135,000
11	랴오닝	25,315	58,008
12	산시	24,438	63,477
13	충칭	20,363	65,933
14	광시	20,353	41,489
15	텐진	18,810	120,607
16	윈난	17,881	37,136
17	헤이룽장	16,362	43,274
18	하이난	4,832	51,955
자무구 합계		703,489	72,106
중국 전체		900,309	64,644

주 : 지역 순서는 GDP 순  
 자료 : 중국 및 각 지역 「2018년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통계공보」.

중국리포트 내용의 일부 혹은 전체를 인용하실 경우, 자료를 「KMI 중국리포트」로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Copyright©KMI All Rights Reserved.

### 통계로 보는 중국 : 중국 18개 자무구 지역의 GDP 현황



주 : 텐진과 후베이성은 지역 GDP와 인구수로 1인당 GDP 계산, 기타 지역은 「통계공보」 발표 수치.  
 자료 : 각 지역 「2018년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통계공보」, 2019. ; KMI 작성.

중국 18개 자무구 지역 GDP 합계 70조 위안, 중국 GDP의 78.1%

2019년 8월, 중국에 6개의 자유무역시범구(이하 ‘자무구’)가 신설되면서, 현재 중국에 설립된 자무구는 18개로 증가했다. 2018년 기준 이 18개 자무구가 속한 지역의 GDP 총합은 703,489억 위안으로 중국 전체 GDP 900,309억 위안의 약 78.1%에 달한다. 또한 이 18개 자무구의 1인당 GDP는 72,106위안으로 중국 평균인 64,644위안보다 7,462위안이 높은 수치이다.

지역별로 보면, 광둥성의 GDP가 97,278억 위안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장쑤성, 산둥성, 저장성, 허난성, 쓰촨성 등의 순이었다. 1인당 GDP의 경우 상하이시가 135,000위안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장쑤성, 텐진시, 저장성, 푸젠성 등의 순이었다. 그중 장쑤성과 텐진시의 1인당 GDP가 상하이시와 함께 10만 위안을 초과했다. 1인당 GDP가 가장 낮은 성은 윈난성(37,136위안)으로 가장 높은 상하이시와의 차이는 무려 97,864위안에 달한다.

18개 자무구 지역 중에서 전년대비 GDP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윈난성이었고(8.9%), 가장 낮은 지역은 텐진시(3.6%)였다. 18개 자무구 지역의 평균은 6.8%로 중국 전체 6.6%보다 다소 높았다. 내륙지역 7개 자무구(허난, 쓰촨, 후베이, 산시, 충칭, 윈난, 헤이룽장)의 증가율 평균이 7.3%로 연해지역 평균 6.5%보다 높아 현재 내륙지역의 발전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름을 시사하고 있다.



## CONTENTS

▶ 통계로 보는 중국 : 중국 18개 자무구 지역의 GDP 현황

▶ 이슈 포커스 : 2019년 중국 자무구 해운·항만·물류 동향 [1] - 지역 범위 확대와 네거티브 리스트 변화를 중심으로

▶ 동향 & 뉴스

## 지수 동향

CHINA CONTAINERIZED  
FREIGHT INDEX

구분	01-04	10-25
종합지수	841.78	777.36
일본 항로	706.33	726.91
구주 항로	1,075.74	904.18
미서부 항로	719.47	658.49
미동부 항로	894.38	859.99
한국 항로	595.61	561.28

주 : '01-04'는 2019년 1월 4일 지수  
자료 : 상하이항운교역소

CHINA COASTAL BULK  
FREIGHT INDEX

구분	01-04	10-25
종합지수	1,067.11	1,151.51
석탄	1,096.03	1,177.43
곡물	923.87	1,045.57
금속광석	1,040.00	1,110.54
정유	1,310.58	1,539.20
원유	1,557.48	1,557.48

자료 : 상하이항운교역소

## 이슈 포커스 : 2019년 중국 자무구 해운·항만·물류 동향 [1]

### - 지역 범위 확대와 네거티브 리스트 변화를 중심으로

2013년 9월, 중국 최초로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自由贸易试验区, 이하 '자무구')가 정식 설립되면서 중국도 '자유무역구(Free Trade Zone)' 시대로 들어섰다<sup>1)</sup>. 당시 중국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관심을 끌었던 자무구의 설립은 만으로 6년이 지난 지금 지역적으로도, 제도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다. 먼저 2013년 상하이에 이어, 2015년에는 광둥, 톈진, 푸젠지역에 3개의 자무구가 추가되었고, 2017년 4월에는 랴오닝, 저장, 허난, 후베이, 충칭, 쓰촨, 산시(陕西)의 7개 지역에도 자무구가 연이어 설립되면서 현재 중국의 총 18개 성·직할시·자치구에 자무구가 설치되어 있다.

제도적으로도 많은 변화들이 있다. 2013년 상하이 자무구에 적용된 '네거티브 리스트' 항목은 총 190개였는데 반해, 2019년판 네거티브 리스트의 항목은 37개에 불과하다. 또한 국무원을 중심으로 각 관련 부처들은 그동안 특정 자무구에서 어느 정도 '시범실시'된 혁신정책 사례(벤치마킹 사례)들을 매년 지속적으로 발표하여, 타 지역 자무구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 자무구의 해운·항만·물류 관련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이번 호와 다음 호의 '이슈 포커스'에서는 2019년에 나온 중국 자무구 관련 중점 내용들을 중심으로 하여, 발전 상황에 대해 정리해 보고, 올해 발표된 자무구의 벤치마킹 혁신 제도와 그 사례들 중 일부를 소개하며, 이에 따른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먼저 이번 호에서는 2019년 발표된 중국 자무구의 지역적인 확장 내용 및 네거티브 리스트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1 2019년 자무구 18개 지역으로 확대

2019년 8월 26일, 중국 국무원은 「6개 신설 자유무역시험구 총체방안에 대한 통지」를 발표하며 산둥, 장쑤, 광시, 허베이, 윈난, 헤이룽장 등 6개의 자유무역시험구의 탄생을 알렸다. 이에 따라, 2013년 9월 상하이를 시작으로 처음 설립된 중국의 자무구는 모두 18개로 확대되었으며, 특히 중국 연해지역 11개 성·직할시·자치구에는 모두 자무구가 설립되었다.

이번에 신설된 6개의 자무구들의 면적은 모두 약 120km<sup>2</sup>로 비슷하며, 허베이 자무구를 제외하고는 모두 3개의 세부 구역(편구, 片区)로 나누어져 있다. 헤이룽장과 윈난을 제외하고는 모두 연해지역에 있어, 해양산업들을 중시하고 있으며, 자연스레 해운·항만·물류 관련 산업들도 상대적으로 발달되어 있는 지역이다. 이번에 설립된 6개 자무구의 「총체방안」 중에는 이들 지역의 해운·항

1) 자유무역시험구(自由贸易试验区)는 '시범실시'한다는 의미의 '시험(试验)'이란 글자가 더해지면서 관련 정책들을 실험하고 시범 실시하는 곳임을 의미하고 있으며, 영문으로도 'Pilot Free Trade Zone'으로 표현되어 '시험하다'라는 'Pilot'이란 표현을 사용함. 본문에서는 편의상 '자유무역시험구'로 지칭함.



## CONTENTS

- ▶ 통계로 보는 중국 : 중국 18개 자무구 지역의 GDP 현황
- ▶ 이슈 포커스 : 2019년 중국 자무구 해운·항만·물류 동향 [1] - 지역 범위 확대와 네거티브 리스트 변화를 중심으로
- ▶ 동향 & 뉴스

만·물류에 관련된 내용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어 향후 동 분야의 발전이 기대되는 지역들이다. 이를 정리해 보면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2019년 신설 자무구의 해운·항만·물류 관련 주요 내용 (면적 단위 : km<sup>2</sup>)

자무구 (총 면적)	세부 구역	해운·항만·물류 관련 주요 내용
산둥 (119.98)	지난 (濟南), 칭다오 (靑島), 옌타이 (煙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해운서비스 능력 제고</b> : 해운 빅데이터 종합정보플랫폼 건설, 기존의 교역 플랫폼을 이용하여 법률·법규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선박 등 해운요소 교역 모색, 칭다오 국제 해양재산권 교역센터가 국제적인 범위에서 선박 교역 지원, 국제환적 LCL(Less than Container Load) 화물 다기능 창고 설립, 중국 국적의 국제선박의 선박검사(선급) 단계적 개방, 외국적 크루즈선박의 유지·보수업무 지원, 산둥성 항만기능을 활용하여 ‘단일 시스템(一單制)’을 핵심으로 하는 복합연계운송 서비스 시스템 구축, 중국-유럽 정기열차 운영을 최적화하여 동쪽으로는 한국·일본, 서쪽으로는 유라시아 대륙을 연결하는 동서 상호연결 대동로 구축, 자무구와 항만·공항이 연동되는 육·해·공 협동발전 추진 등</li> <li>- <b>한·중·일 지역경제협력 심화</b> : 중·일, 한·중 세관간의 ‘AEO’ 인증 협력 강화, 상호 정보 교환과 검사관리 상호인증 및 법집행에 있어서 상호 협력, 검역·표준계량 등 방면에서 효율적인 협력 시스템 구축, 한·일과 신선 농산물에 대한 리스트 제작·확정 및 신속 통관이 가능한 ‘녹색통로’ 개통, FTA 체결국 간의 정기선 위생검역과 관련하여 ‘전자보고, 무(无) 검역 통행’ 모델 혁신 등</li> </ul>
장쑤 (119.97)	난징 (南京), 쑤저우 (蘇州), 롄윈강 (連雲港)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무역편리화 제고</b> : 국제 선진수준의 국제무역 ‘단일창구(單一窗口)’ 건설, 자무구 내 기업들의 국제전자상거래 수출입 업무 지원, 자무구 내 종합소보세구에서 단계적으로 국제전자상거래 소매수입정책 실현, 자무구의 완성차 수입 통상구 구축, 선물(期貨) 보세교역 및 창고증권(倉單) 담보융자업무 전개 등</li> <li>- <b>‘일대일로’ 전략의 교차점으로 육성</b> : 자무구 내 복합연계운송센터 설립 및 신속한 복합연계운송시스템 구축, 자무구에 철도 대외개방 통상구 자격 부여, 철도 ICD(Inland Container Depot) 건설, 벌크화물 집결센터 건설, 해외물류기지 건설 촉진, 국제운송 편리화 촉진 추진 등</li> </ul>
광시 (119.99)	난닝 (南寧), 친저우 (欽州), 충좌 (崇左)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ASEAN과의 막힘없는 육·해상 국제통로 구축</b> : 베이부완(北部灣)항의 국제 해운항로 확장, 베이부완항~중서부 내륙지역의 육·해 복합연계운송 정기노선 개통 확대, 중국~인도차이나반도 간 국제화물 정기철도·도로운송노선 확대, 난닝(南寧) 공항, 난닝 국제철도역의 서비스역량 강화, 난닝 공항경제시범구 건설 및 항공사 유치, 난닝~동남·남아시아 간 항공노선 확대 지원 등</li> <li>- <b>복합연계운송서비스 혁신</b> : Sea&amp;Rail을 중심으로 하는 복합연계운송 시스템 건설, 복합연계운송 ‘단일시스템’ 개혁 지원, 국제 육·해 무역 신통로를 운행하는 정기열차 노선에 대한 전 노선 정가 시스템 구축, ASEAN 국가 주요 항만에 철도 컨테이너 반환지점(컨테이너 리포지셔닝 지점) 설치, 중국-유럽 안전스마트 무역항로 시범계획 추진, ‘국제 전자상거래+국제복합운송’의 신모델 강구 등</li> <li>- <b>중국 서부지역의 육·해 문호항으로 구축</b> : 베이부완 지역 협력 강화 및 중국-ASEAN 항만도시 간 네트워크 강화, 친저우(欽州)항 컨테이너 간선운송 능력 제고, 베이부완항의 중점 항만·해운사업에 대한 해역 및 토지사용 지원, 해운·물류기업의 지사 혹은 운영센터를 설립하여 국제환적, 환적 LCL업무, 해운교역 등 서비스업무 전개 지지, 기존의 교역장소를 이용하여 법률·법규에 맞게 선박 등 해운요소 교역 모색, 베이부완항에서 ‘위안강야오 대만구(粵港澳大湾区, 광둥·홍콩·마카오 경제권)까지 원양과 내수무역 컨테이너의 혼재운송 허용 모색, 더욱 개방된 국제선박등록제도 구축 모색 등</li> </ul>



## CONTENTS

- ▶ 통계로 보는 중국 : 중국 18개 자무구 지역의 GDP 현황
- ▶ 이슈 포커스 : 2019년 중국 자무구 해운·항만물류 동향 [1] - 지역 범위 확대와 네거티브 리스트 변화를 중심으로
- ▶ 동향 & 뉴스

허베이 (119.97)	승안 (雄安), 정딩 (正定), 차오펬이텐 (曹妃甸), 따싱공항 (大兴机场)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국제 벌크상품 무역 중점 지원</b> : 기존의 교역장소를 이용하여 법률·법규에 맞게 광석·강철·석탄·목재·천연가스·곡물·설탕 등 중점 벌크상품(大宗商品)의 현물교역 실시, 벌크상품 선물 보세인도창고 및 역외 교역플랫폼 구축 지원, 광석의 혼합·분배업무(混配) 지원, 저장·소매·가공·배송시스템 완비, 국유기업의 상업 오일탱크를 활용한 저장과 리스 허용, 정유와 보세연료유의 인도·저장업무 지원, 자무구 내 기업이 동일하지 않은 관세 항목 내에서의 보세유류의 혼·배합 허용, LNG 저장·운송시설 건설 및 배송시스템 완비 지원 등</li> <li>- <b>국제 무역·물류의 중점 허브 건설</b> : 복합연계운송센터 설립 및 해운기업 육성, 해운보험기구 설립 지원, 차오펬이텐에 국제선박 예비부품 공급 공공플랫폼 설립 및 설비 A/S센터와 선박부품시장 구축 지원 등</li> </ul>
윈난 (119.86)	쿤밍 (昆明), 홍허 (红河), 더홍 (德宏)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지역 국제물류중심 구축</b> : 남아시아·동남아시아 국가 대상 복합연계 운송 시범실시 전개, 국제도로운송 편리화 추진, 콜드체인물류기지 네트워크 구축, 국제 물류공공정보플랫폼 건설 가속화, 중·미얀마·베트남·라오스·태국 등 국제물류대통로 건설, 주변국에서 운영 중인 화물차량의 윈난성 내에서 화물 상하차 허가 등</li> <li>- <b>국경자원 저장기지 구축</b> : 소고기·고무 등 상품 비축제도 개혁, 기존 교역장소가 법률·법규에 부합하여 금속·커피·고무·축산물 등 상품 교역 전개, 농산물 및 유색금속 경매센터 설립 등</li> </ul>
헤이룽장 (119.85)	하얼빈 (哈尔滨), 헤이허 (黑河), 쑤이펀허 (绥芬河)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러시아 및 동북아 교통물류허브 건설</b> : 내수무역 화물의 제3국 경유 운송 관련 화물 범위 및 경유 항만 확대, 하얼빈에 내륙항(Dry Port) 건설, 쑤이펀허의 국경 철도확장 추진, 하얼빈 국제항공허브 건설, 쑤이펀허 철도위험화학품 처리장 설립 지원 등</li> <li>- <b>국경지역 개방수준 제고</b> : 수입 에너지자원의 국가 저장기지 건설, 자무구내 기업의 주변국에서 화학비료 수입 지원 등</li> </ul>

자료 : 중국 국무원, 6개 신설 자유무역시범구 총체방안에 대한 통지(关于印发6个新设自由贸易试验区总体方案的通知), 중 각 자무구의 「총체방안」.

## 2 상하이 '린강신구역'의 탄생, 연해운송 개방하나?

자무구의 신설뿐만 아니라, 기존 자무구도 지역적으로 확장되었다. 지난 8월 6일, 중국 국무원은 「중국(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 린강신구역(临港新片区) 총체방안」(이하 「총체방안」)을 발표하였으며, 8월 20일 「린강신구역」이 정식으로 설립되었다. 린강구역의 범위는 상하이시 다쯔허(大治河) 이남, 진후이항(金汇港) 동쪽으로, 소양산도(小洋山岛) 및 푸둥국제공항 남측지역까지 포함되며 총 면적은 119.5km<sup>2</sup>에 달한다<sup>2)3)</sup>. 특히 린강신구역은 와이까오차오항, 양산항, 푸둥공항과 철도역의 연동을 통해 고효율의 복합운송을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그림 1] 상하이 린강신구역 분포 및 복합연계운송 연계도



자료 : 临港集团官方网站, <https://www.shlingang.com>

2) 중국(상하이)자유무역시범구 린강신구역 홈페이지, <https://www.lgxc.gov.cn/index.html>

3) 양산항이 있는 소양산도는 이미 자무구에 포함된(양산보세항) 지역임, 필자 주.



## CONTENTS

- ▶ 통계로 보는 중국 : 중국 18개 자무구 지역의 GDP 현황
- ▶ 이슈 포커스 : 2019년 중국 자무구 해운·항만·물류 동향 [1] - 지역 범위 확대와 네거티브 리스트 변화를 중심으로
- ▶ 동향 & 뉴스

린강신구역의 설립과 함께, 상하이시정부 제60차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통과된 「중국(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 린강신구역 관리방법」(이하 「관리방법」)도 8월 20일부터 정식으로 시행되었다. 「관리방법」에 따르면, 린강구역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높은 수준의 개방정책들이 추진되며, 국제 시장에서 영향력과 경쟁력을 지닌 ‘특수 경제기능구역’으로 구축될 방침이다. 특히 「관리방법」의 제6장은 ‘국제운송 편리화’로서 아래 [표 2]의 주요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표 2] 린강신구역의 해운·항만·물류 관련 주요 추진 내용

구분	해운·항만·물류 관련 주요 내용
제24조 국제선박등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더욱 편리한 양산항의 선박등록관리제도를 실행하고 점진적으로 선박 법 정검사를 완화</li> <li>- 효과적인 감독관리, 리스크 관리의 전제 하에 역내 제조의 ‘중국 양산항’ 등록 선박이 국제운송에 종사하는 것에 대해 수출로 간주하고 국가 규정에 따른 수출 세금환급금을 지급</li> </ul>
제25조 국제해운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외 기업과 관련 기구가 해운운자, 해운보험, 해운결산, 항해자재 리스, 선박교역, 해운중재 등의 서비스 전개를 지원</li> <li>- 국제해운 보급서비스체계를 구축하고 해운지수 관련 파생산업 개발 촉진</li> </ul>
제26조 선적항 세금환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적항 세금환급(启运港退税) 정책을 더욱 개선하고, 양산항을 통해 컨테이너 화물을 수출하는 조건에 부합하는 수출기업에 대해 더욱 편리하고 고효율의 감독관리 정책 및 서비스 제공</li> </ul>
제27조 복합연계운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산심수항, 푸둥국제공항, 루차오(芦潮)항 철도컨테이너센터를 매개체로 해운과 항공운송, 철도운송 정보를 공유하여 복합운송 운행효율 제고</li> </ul>
제28조 국제항공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푸둥국제공항 항공운송 환적 LCL업무를 지지하고 더욱 편리한 세관 감독관리 실시</li> <li>- 푸둥국제공항이 물류, 분류, 감독관리가 결합된 항공 화물스테이션 구축을 지원하고, 더욱 편리한 항공운송 화물운송 감독관리 모델과 화물수송기 인력의 출입국심사 관리모델 실행</li> <li>- 국제환승 여객과 화물에 대해 통행 여정의 연계운송을 실행하여 환승 시간을 더욱 단축</li> </ul>

주 : 화물 선적항>Loading port) 수출세 환급 정책은 2012년 8월 부터, 칭다오 前灣)항과 우한 阳逻)항에서 양산항을 경유하여 수출되는 화물에 대해 선박이 선적항에서 떠날 시 수출로 간주하여 수출세 환급이 가능하게 한 제도로서, 이후 지역적인 범위가 지속 확장됨.  
자료 : 상하이시정부, 「중국(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 린강신구역 관리방법」, 2019.8.

특히 주목할 부분으로, 8월 6일에 발표된 「총체방안」의 제7항에서는 “중국 자본 편의치적선의 연해 ‘샤오파이’(捎带, 연해운송의 일종<sup>4)</sup>)’ 정책실시 효과를 확대하고, 동등한 원칙에서 외국적 국제운항선박이 양산항을 국제 환적항으로 하는 대외무역 컨테이너의 ‘샤오파이’ 업무 허용 여부를 연구하겠다.”고 밝힘으로써<sup>5)</sup>, 외국 선박들의 중국 일부 구간의 특정한 연해운송 허용도 ‘검토’

- 4) ‘샤오파이(捎带)’란 말은 사전적인 의미로 ‘~하는 길에 하다, 혹은 가는 길에 가져오다’라는 의미이며, 연해 ‘샤오파이(捎带)’ 업무는 외국적 선박이 국제운송 과정 중에서 특정 국가 항만에서 환적을 할 시에 해당국의 국내 항만간의 운송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지칭하며, 일종의 카보타지(cabotage) 개방에 해당되지만, **완전한 국내운송 개방이라 보이는 어려운 바 본문에서는 ‘샤오파이’라는 원어를 그대로 사용함**, 중국은 2003년부터 교통운수부의 「국제 정기선사의 중국 연해 주요항만에서 공컨테이너 조정운송 동의에 관한 서한」에 따라, ‘공컨테이너’의 리포지셔닝에 대해서는 외국 선사들에게도 ‘샤오파이’를 허용을 해왔음, 赵殊, “沿海捎带业务解读”, 「航海技术」(2015.7) 등을 토대로 필자 정리.
- 5) 「중국(상하이)자유무역시범구 린강신구역(临港新片区) 총체방안」 중의 “扩大中方方便旗船沿海捎带政策实施效果, 研究在对等原则下允许外籍国际航行船舶开展以洋山港为国际中转港的外贸集装

箱沿海捎带业务’ 部分,

## CONT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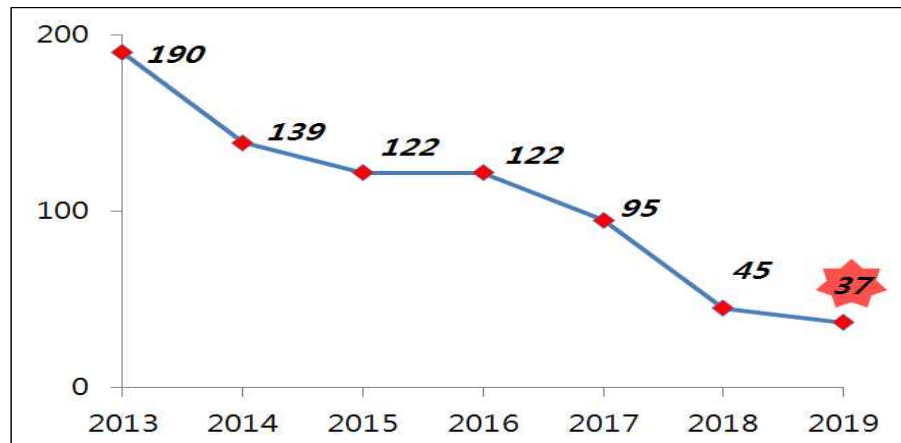
- ▶ 통계로 보는 중국 : 중국 18개 자무구 지역의 GDP 현황
- ▶ 이슈 포커스 : 2019년 중국 자무구 해운·항만물류 동향 [1] - 지역 범위 확대와 네거티브 리스트 변화를 중심으로
- ▶ 동향 & 뉴스

## 3 2019년 판 자무구 네거티브 리스트

중국 정부는 외국인의 투자 금지제한 항목에 대해 「외상 투자진입 특별관리 조치(外商投资准入特别管理措施)」라는 ‘네거티브 리스트(Negative list, 수입의 금지나 제한을 가하는 품목의 리스트)’를 통해 투자관리 체계를 개혁해 왔다. 또한, 2013년 상하이 자무구 설립과 함께 자무구에 별도 적용하는 ‘네거티브 리스트(「자유무역시험구 외상 투자진입 특별관리 조치[自由贸易试验区外商投资准入特别管理措施])」’를 제정하여 전국적으로 통용되는 ‘네거티브 리스트’와 이원화시켰다.

‘자무구 네거티브 리스트’는 2013년 지정 당시 190개 항목이었으나, 2014년 139개 항목으로 축소되었고, 2015년 다시 122개 항목으로 축소되는 동시에 상하이 자무구 뿐만 아니라, 당시 설립된 광둥, 텐진, 푸젠 자무구까지 확대 적용되었다. 또한 2017년에는 95개 항목으로 축소되고, 신설된 11개 자무구 지역에 적용되었고, 2018년에는 45개 항목으로 대폭 축소되었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상무부는 2019년 6월에도 ‘자무구 네거티브 리스트 2019년 판’을 발표했다으며 이는 동년 7월 30일부터 시행되었다. 2019년 판 네거티브 리스트는 2018년 판 45개 항목 대비 8개가 감소한 37개 항목으로 줄었으며, 서비스업, 제조업, 광업, 농업 등의 분야를 전면적으로 개방하며, 첨단제조, 스마트 제조, 친환경 제조에 더 많은 외자를 유치하도록 하였다<sup>6)</sup>.

[그림 2] ‘자무구 네거티브 리스트’의 항목 변화 추이



자료 : 중국 상무부 등, 「자유무역시험구 외국인 투자 진입 특별관리 조치」, 2013~2019.

특히 2019년 판 ‘자무구 네거티브 리스트’에서는 교통·운송분야에서는 2018년도 판에 있었던 “중국 내 선박 대리회사는 중국측이 지배주주일 것(国内船舶代理公司须由中方控)” 부분이 삭제되어, 자무구에서 외국인이 지배 주주가 되는 선박 대리회사 설립이 가능해졌다. 이로써 현재 ‘자무구 네거티브 리스트’에서 남아 있는 교통·운송분야의 항목은 아래 [표 4]의 6개 항목에 불과하다.

6) KOTRA, “中 2019 자유무역시험구 외국인투자 진입 특별관리조치 정식 시행”, <http://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globalBbsDataView.do?setIdx=322&dataIdx=176179>





## CONTENTS

- ▶ 통계로 보는 중국 : 중국 18개 자무구 지역의 GDP 현황
- ▶ 이슈 포커스 : 2019년 중국 자무구 해운·항만·물류 동향 [1] - 지역 범위 확대와 네거티브 리스트 변화를 중심으로
- ▶ 동향 & 뉴스

[표 4] 2019년 판 ‘자무구 네거티브 리스트’의 교통·운송분야 항목

No.	항목
1	국내 수상 운송회사는 중국측이 지배주주일 것(중국 국적 선박이나 선실 객석을 경영 혹은 임대하는 방식으로 국내 수상 운송업 혹은 보조업무 종사 금지. 수로운송 경영자는 수로운송 업무에 외국적 선박을 사용할 수 없으나, 중국정부의 허가 하에 신청한 운송요구에 따른 중국적 선박이 국내에 없고 선박이 정박하는 항만/수역이 대외 개방된 항만/수역인 상황 하에 수로운송 경영자는 중국 정부가 규정한 기한 혹은 횟수 내에 임시적으로 외국적 선박을 사용하여 중국 항만 간 해상운송 경영이 가능함)
2	공공항공(公共航空) 운송사는 중국측이 지배주주여야 하고, 1개의 외국인투자자 및 관련 기업의 투자비율은 25%를 넘을 수 없으며 법정대표는 중국 국적자가 담당해야 함(중국 공공항공 운송기업만 중국내 항공 서비스를 경영할 수 있고, 중국지정 운송계약업자는 정기 및 비정기적으로 국제 항공서비스를 제공함)
3	일반항공(通用航空) 회사의 법정대표는 중국 국적자가 담당해야 하고, 농업·임업·어업의 일반항공회사는 합자로 제한되고, 기타 일반항공회사는 중국측이 지배주주여야 함
4	민간용 공항(民用机场)의 건설과 경영은 중국측이 지배주주여야 함
5	공공교통 관제에 대한 투자 금지
6	우정회사(및 우정서비스 경영), 우편물의 국내 속달사업에 대한 투자 금지

자료 : KOTRA, 「2019 자유무역시험구 외국인 투자진출 특별관리조치 신규 네거티브 리스트(번역본)」, 2019.7.15.

## 4 시사점

2013년 상하이 자무구 설립으로 중국은 ‘자유무역구’ 시대에 접어들었고, 이제는 중국에 총 18개의 자무구가 설립되었다. 만으로 설립 6년이 지난 상하이와 비교적 초기에 설립된 텐진, 푸젠, 광둥 자무구의 개혁 조치는 어느 정도 성숙한 단계에 이르렀으며, 중국 정부는 이미 검증된 자무구의 혁신제도들을 다른 자무구로 홍보·보급시키고 있다. 중국의 자무구는 이러한 개혁혁신 조치들이 다른 지역보다 선행적으로 실시되는 지역이며, 이러한 조치들은 기업들에게 보다 편리한 환경과 새로운 투자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다. 특히 현재 자무구가 연해 지역뿐만 아니라, 내륙 지역에도 다수 설립된 바, 중국의 내륙 시장 진출을 고려하는 우리나라 기업들도 자무구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 활용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자무구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현재 중국 자무구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 특히 해운·물류기업들은 찾기 힘들다. 최초로 설립된 상하이 자무구의 예를 들어도, 오히려 과거 ‘보세구’였을 때는 일부 우리나라 물류기업이 물류 센터를 운영하고 있었지만, 지금은 운영을 중지한 상태이다. 물론 자체 물량의 감소의 요인도 있겠지만, 자무구 지정 후 오히려 임대료가 상승하는 등 사업 여건이 오히려 악화되었다는 지적도 존재한다. 또한 현행되고 있는 혁신정책들도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만 향유하도록 하여,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기업들에게는 큰 매력이 없다는 불만도 제기되고 있다. 물론 이는 현재 중국의 토지 임대료 상승 등 근본적인 문제에 기인할 수도 있지만, 자무구에 관심을 가지는 기업들은 이러한 점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 CONTENTS

- ▶ 통계로 보는 중국 : 중국 18개 자무구 지역의 GDP 현황
- ▶ 이슈 포커스 : 2019년 중국 자무구 해운·항만·물류 동향 [1] - 지역 범위 확대와 네거티브 리스트 변화를 중심으로
- ▶ 동향 & 뉴스

또한 상술한 바와 같이, 중국의 ‘자무구 네거티브 리스트’는 과거에 비해 현저히 축소된 상황으로 외자기업의 진출 가능분야가 더욱 확대되었다. 하지만, 개방된 분야에서는 이미 중국 현지 기업들도 경쟁력을 갖추고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는 바, 자사의 경쟁력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이 먼저 요구된다.

현재 자무구가 중국의 연해 성·시에 모두 설립되어 있고, 이들 지역에 중국의 주요 항만들이 포진해 있는 바, 자무구의 혁신 조치들은 중국 해운·항만·물류업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관련 업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본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상하이 자무구에서는 연해 ‘샤오파이’ 업무를 외국 선박에 개방까지 검토하고 있다. 물론 ‘샤오파이’업무의 개방에 있어서는 아직 다양한 업계에서의 찬반 의견이 팽팽하지만, 만약 정말로 ‘검토’를 거쳐서 개방된다면, 향후 외국적 선사, 특히 인근한 우리나라 선사 및 환적 화물을 주 화물원으로 하고있는 부산항 등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이미 2013년 상하이 자무구 설립 전에도 외국 선박에도 ‘샤오파이’ 업무를 개방하면 상하이의 환적 컨테이너 물동량을 늘릴 수 있다고 관련 업계에서는 주장해 왔으며, 부산항의 환적 물량 전이를 언급하기도 했다<sup>8)</sup>. 이에 부산항을 비롯한 우리의 항만들 역시 ‘샤오파이’ 업무의 개방이 가져올 영향에 대해 선제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또한 항만의 입장에서 물동량 확보 관건이 비용과 서비스 효율임을 감안할 때 항만비용 경쟁력 및 항만 생산성 향상 방안 모색, 선사·화주 편의적인 서비스 효율 제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반면으로 정기선사나 물류기업, 화주의 입장에서는 운송루트가 다양화됨에 따라 항만 및 중국 피터선사에 대한 협상력 강화 기회를 제공해 줄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하이난 등 자무구에서는 ‘자유항(Free port)’ 설립이 추진되고 있는데, 그 개념에 대해 파악하고 우리나라에 미칠 수 있는 영향과 나아가 우리나라가 벤치마킹할 부분에 대해서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향후 중국 자무구의 추진 과정에 대해 지속적이고 면밀한 모니터링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김세원 전문연구원·한광석 센터장  
kmishanghai@naver.com

7) 中国航务周刊, “尊敬的施索仁先生, 关于外轮沿海捎带, 他们有话说……”, <http://www.sofreight.com/wap/sfnews/index.html?id=32802&from=singlemessage&isappinstalled=0>

8) 중국의 증권사인 ‘창장증권(长江证券)’에서는 2011년에 비중국국적선의 ‘샤오파이’ 업무를 허용함으로써, 중국 발해만에서 부산으로 환적되는 컨테이너 상당량을 상하이로 유치 가능하다고 분석한 바도 있음, 东方日报, “上港集团欲打造‘中转大港’”, <http://sh.sina.com.cn/news/2011-02-22/0144173431.html>



## CONTENTS

- ▶ 통계로 보는 중국: 중국 18개 자무구 지역의 GDP 현황
- ▶ 이슈 포커스: 2019년 중국 자무구 해운·항만·물류 동향 [1] - 지역 범위 확대와 네거티브 리스트 변화를 중심으로
- ▶ 동향 & 뉴스

## 동향 & 뉴스

### 경제 · 정책

- 「2019년 중국해양경제발전지수」 발표
- 자유무역구와 자유항 건설 가속화! 중국 10개 방면에서 대외무역 수준높은 발전 추진
- 중국세관총서에서 최신 「수입수산물 진입허가 절차」 발표
- 중국 최초 「내하수운 발전 평가 규범」 발표 예정
- 창장삼각주 크루즈 일체화 발전 가능성 큼

### 해운 · 항만 · 물류

- 하역 효율이 높을수록 접안 시간이 길다, 컨테이너터미널은 자동화를 추구해야 하나?
- 저장 국제 선박 LNG 발전 추진을 통해 ‘해상대통로’ 가속화 추진
- 중국 최초 해운보험요소 거래 플랫폼 운영 시작
- CSSC와 China General Nuclear Power Group 전략적 협력 체결
- 후난(湖南)성 수운사무센터 정식 설립
- 우한(武汉)항, 올해 항만 컨테이너물동량 100만 TEU 달성 전망
- 광둥성 첫 30만 톤급 공용 유류터미널 시범운영 개시
- 선전 엔티엔항(盐田港) 20만 급 전자동화터미널 건설 계획

- 광저우항그룹, 올해 1~3분기 완성차량 Ro-Ro 물동량 100만 대 돌파로 중국 1위

### 해양 · 수산

- 자연자원부와 국제해저관리기구, 합동 교육훈련·연구센터 설립에 관련 양해각서 체결
- 제56차 대양탐사 성공적 마침
- 중국-태평양도서국가 경제발전협력 포럼에서 환경보호와 기후변화 논의
- 중국 해양저서동물을 위한 규범화된 분류 데이터베이스 구축
- 창장 ‘어류 고갈’문제 해결 시급, 금어제도 이외 다른 조치 필요
- 하이난 수산양식 폐기물 배출 표준 발표
- 하이난에서 현대 어업단지 및 서해안 현대화 해양목장 건설 계획
- 심해 블루해양생물 연구중심 설립, 심해 녹색양식 발전 추진
- 웨이하이 시장에서 신선어류 가격이 높지 않고 현지자연산 대하가격 소폭 상승
- 중국농업농촌부: 중국 오징어 연생산량 9년 동안 세계 1등 유지

자세한 동향 내용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중국연구센터 홈페이지  
(<http://www.kmishanghai.org>)  
<동향 분석> → <주요 뉴스>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파란색** 부분은 번역된 기사임.





## CONTENTS

- ▶ 통계로 보는 중국 : 중국 18개 자무구 지역의 GDP 현황
- ▶ 이슈 포커스 : 2019년 중국 자무구 해운·항만물류 동향 [1] - 지역 범위 확대와 네거티브 리스트 변화를 중심으로
- ▶ 동향 & 뉴스

## 동향 & 뉴스

### 1 「2019년 중국해양경제발전지수」 발표

2018년 중국 해양경제는 전체적으로 안정한 발전추세를 유지해왔는데, 경제실력은 계속 강화되고 있고 민생복지도 계속 촉진되고 있다. 또한 해양 생태환경 상황은 날로 개선되고 있고 해양경제발전의 품질은 향상되고 있다. 「2019년 중국해양경제발전지수」에 따르면, 2011년~2018년의 중국해양경제발전지수(OEDI)는 105.4에서 131.3로 올랐는데, 연평균 3.5% 증가했고, 2018년에는 3.2% 증가했다.

중국 해양경제생산총액은 2018년의 8조 3,000억 위안을 기록해 2011년보다 83% 증가했다. 해양경제가 국민경제에 대한 기여도는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1년~2018년 기간의 해양생산총액이 국내생산총액의 9% 이상을 차지했다. 2018년 중국 해양경제가 국민경제 성장에 대한 기여율은 9.4%에 달했다.

해양산업구조는 계속 최적화되고 있다. 서비스업은 해양경제발전에 대한 촉진 작용은 강화되고 있고, 중국 제3차 해양산업의 부가가치액이 해양생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의 47.2%에서 2018년의 58.6%로 올랐다. 그 가운데 2018년의 해양관광업 부가가치액은 1조 6000만 위안으로 전년대비 8.3% 증가했으며, 해양경제 성장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 해양재생가능에너지이용산업, 해양바이오의약품산업, 해수이용업 등 신산업도 해양경제 구조조정의 새로운 엔진이 되었다. 2018년에 해양신산업의 부가가치액은 10.4% 증가했으며 전체 해양경제의 증가율보가 3.7%p 높았다.

또한, 해양경제는 품질효익(质量效益) 패턴으로 전환하는 데 많은 성과를 얻었다. 개혁으로 시장을 활성화시켜 해양관련 기업의 경영효율성과 이익 확보능력이 빠르게 제고되고 있다. 2018년에 해양관련 기업의 원가이익률, 주요업무 수익 이윤율과 자산 이윤율은 각각 3.9%p, 3%p, 2.1%p 증가했다. 그리고 해양경제 생산효율성은 계속 향상되고 있는데, 2018년의 해양 노동생산율은 2011년의 1.7배이다.

이와 동시에 해양 대외개방도 계속 확대되고 있다. '일대일로' 전략 추진에 따라 중국은 글로벌 산업사슬과 가치사슬에 적극적으로 융합하고 있다. 2018년에 중국은 '21세기 해상실크로드 연선국가와의 경제무역'을 확대했으며, 무역액은 1조 3,000억 위안에 달해 전년대비 32.6% 증가했다. 이 증가속도는 '일대일로' 연선국가의 수출입액보다 19.3%p 높았다. 그리고 일련의 중국기업은 국제 해양관련 프로젝트를 맡았고, 해양영역에 관한 경제무역 협력이 계속 심화되고 있다.

해양경제발전은 전체적으로 안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경제 발전은 이미 고속 성장 단계에서 중고속 성장 단계로 진입했다. 경제 증가속도가 완화된다고 있지만 안정성이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 해양생산총액 증가율의 변동 폭이 2011년의 5.3%p에서 2018년의 0.2%로 하락했다. 2018년 국내외 해운시장은 점점 회복되고 있는데, 해운가격은 회복성 성장추세를 보이고, 연해 벌크화물 운임지수 및 수출 컨테이너 운임지수가 안정적인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민생개선의 효과도 뚜렷하다. 2018년 해양관련 취업자 총규모는 3,684만 명에 달했으며, 2011년보다 262만 명을 늘었다. 어민의 1인당 순수익도 빠른 증가를 보였으며, 2018년에 2.6만 위안에 달해 2011년보다 1배 늘었다. 또한, 광둥(广东), 저장(浙江)과 장쑤(江苏) 등 지역은 어업보험 실시방안 정책을 연이어 발표했는데, 어민 권익을 위한 보장을 강화했다. 그리고 2018년까지 중국 전국에서 총 48개 해양공원이 건설돼 있고, 1만 명당의 해양공원 면적은 3.8헥타르에 달했다. 이를 통해 국민 해양의식 교



## CONTENTS

- ▶ 통계로 보는 중국 : 중국 18개 자무구 지역의 GDP 현황
- ▶ 이슈 포커스 : 2019년 중국 자무구 해운·항만물류 동향 [1] - 지역 범위 확대와 네거티브 리스트 변화를 중심으로
- ▶ 동향 & 뉴스

육, 레저휴양, 학술연구와 생태체험을 위해 좋은 공간을 마련해 주었다.

해양과학기술 혁신 성과도 많이 나타났다. 2018년에 중점 모니터링한 해양과학연구기관의 과학기술자가 2011년보다 20% 이상 증가했다. 연구·실험을 위한 경비는 2011년보다 90% 증가했고 특허권 부여는 2011년의 3.5배이 된다. 공급 시스템의 고품질 발전을 위해 일련의 선진기술을 가진 제품과 장비가 사용되었다.

또한, 해양자원과 생태보호가 현저히 강화되었다. 2018년까지 바다로 직접 배출된 오염물 총량은 계속 감소되었다. 2018년에 제1등급 해수 수질기준에 달한 해역면적은 중국 관할해역 면적의 96.3%를 차지했으므로 해수환경 품질은 좋아지고 있다. 또한, 2018년 자연자원부가 해양자원 관리와 보호에 관한 여러 조치를 내놓았는데, 그 가운데 '블루해만' 정돈활동을 통해 150km를 넘는 해안선을 복원시켰다. 향후 '절약우선, 보호우선, 자연회복 위주'의 방침에 따라 해양자원에 대한 절약이용 및 생태에 대한 보호·복원을 더욱 강화할 것이다.

< 출처 : 中国海洋报, 2019. 10. 17 >

## 2

### 자유무역구와 자유항 건설 가속화! 중국 10개 방면에서 대외무역 수준높은 발전 추진

10월 24일 오전, 「국무원의 대외무역 전환발전 가속화를 통한 수준 높은 무역발전 추진에 대한 작업상황 보고(이하 「보고」)」는 13차 전인대 상무위원회의 심의요청으로 상무부 부장 종산(钟山)이 국무원을 대신하여 관련 상황을 소개했다. 「보고」는 10개 방면에서 중국 대외무역의 수준높은 발전을 추진할 것이다.

#### (1) 대외무역의 꾸준한 내실향상

무역발전의 산업기초를 다지고, 전통산업을 발전시키고, 제품의 부가가치를 향상시키고, 수출제품의 품질을 대폭 향상시키고, 무역혁신능력을 강화하고, 브랜드 육성을 강화하고, 국제 마케팅 네트워크 구축을 강화하여 무역의 종합경쟁력을 향상시킨다. 국무원이 발표한 대외무역 정책조치를 적극 실천한다. 동시에 형세변화와 기업의 상황에 의거해 보완정책을 강화한다. 미중 무역마찰에 적극 대응한다.

#### (2) 국제시장구조 최적화

선진 경제체제 등 전통시장을 지속적으로 발굴한다. '일대일로' 국가와의 무역협력 심화로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등 시장을 공동 구축한다. 점진적으로 자유무역 파트너, 신흥시장과 개발도상국의 대외무역 중의 점유율을 확대하고 주변 국가와의 무역 규모를 확장한다. 무역전문팀 구성 추진을 지속한다.

#### (3) 적극적으로 수입 확대

제2회 중국국제수입박람회의 경험을 활용하여 '더욱 큰 규모, 제품 최적화, 혁신강화, 높은 효율'을 위해 노력한다. 시진핑 총서기의 제1회 중국국제수입박람회 개막식에서의 담화 정신을 적극 관철하여, 수입공간 확대, 수입절차 제도성 비용 인하 등을 실천한다. 수입구조를 최적화한다. 국내 자원성제품수요에 대한 수입을 장려한다. 일용소모품, 의약건강품, 헬스케어 등 제품과 설비의 수입을 지지한다. 연구개발 설계 에너지환경보호, 환경서비스 등 생산성 서비스의 수입을 추진한다.

#### (4) 무역 산업태발전 촉진

무역 산업태 신모델 육성에 대한 지도의견 공표를 추진한다. 역외전자상거래 종합





## CONTENTS

- ▶ 통계로 보는 중국 : 중국 18개 자무구 지역의 GDP 현황
- ▶ 이슈 포커스 : 2019년 중국 자무구 해운·항만물류 동향 [1] - 지역 범위 확대와 네거티브 리스트 변화를 중심으로
- ▶ 동향 & 뉴스

시험구 건설을 추진하고 풍부한 경험을 적극적으로 공유한다. 역외전자상거래 리테일 수출관리모델과 통관작업절차, 세관통계제도를 최적화하여 역외전자상거래 리테일 수입 시범도시 범위를 확대한다. 경험을 통합하여 관리시스템과 정책조치를 최적화하고, 시장구매 무역방식을 추진한다. 대외무역 종합서비스 기업발전정책을 완비하고 정보공유와 연합관리를 추진한다. 기타 무역 신업태의 발전을 장려한다. 변경무역의 정책조치를 착실히 실행한다. 변경지역 민생안전과 경제부흥을 촉진한다.

### (5) 서비스무역 발전 강화

서비스무역의 개혁과 개방을 심화하여 서비스무역발전의 관리시스템과 정책시스템의 최적화를 추진한다. 서비스무역 혁신발전을 심화하고, 서비스무역 혁신발전 시행 6항 개방 편리조치와 보장조치를 심화 실천한다. 서비스외주 모범도시 종합평가와 관리제도를 추진한다. 13개 국가 문화수출기지 평가시스템을 구축하여 디지털서비스와 중의약서비스 수출기지 건설을 전개한다. 서비스무역통계 검측시스템을 더욱 최적화한다.

### (6) ‘일대일로’ 건설추진 심화

무역협력을 심화하고, 무역영역을 확장하여 제2회 ‘일대일로’ 국제협력포럼 성과를 이어받아 개방조치와 경제무역성공을 위해 적극적으로 실행한다. 전 세계적 전자상거래 포럼을 적극 기획한다. 투자협력을 혁신하고 쌍방투자영역을 확대하고, 산업투자밀집과 기초설비의 상호연결을 추진한다. 이로써 종합효율이 향상되고 영향력이 큰 주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해외진출의 장기발전 계획을 실행한다. 무역투자 자유화와 편리화를 촉진한다.

### (7) 자유무역시험구와 자유무역항 건설의 가속화

자유무역구의 차별화를 모색하여 국가 중대전략에 융합되도록 노력한다. 새로운 버전의 자유무역구 외자도입 네거티브리스트를 적극적으로 실시한다. 자유무역시험구의 시장진입 완화 특히 서비스업 개방조치에 대해 연구한다. 하이난 자유무역시험구의 건설을 전면 추진한다. 수준높은 중국 특색의 자유무역항의 건설을 추진하고, 하이난 자유무역항 정책과 제도 시스템을 심화하여 개방 수준이 높고 비즈니스환경이 최적화되고, 영향력이 더욱 강한 개방된 신고지를 구축한다.

### (8) 다자간의 통합된 협력

세계 경제에 참여하고 다자간 무역 시스템을 공고히 하며, 일방주의와 보호주의에 반대하며, WTO에 맞는 필요한 개혁을 추진한다. G20, 브릭스, APEC, GTI 등 다자간 지역 협력시스템에 적극 참여하여 ‘중국방안(中国方案)’에 공헌한다.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RCEP)의 조속한 체결을 추진한다. 고수준의 자유무역구 건설을 가속화하고, 세계 주요 경제체와 자유무역구 비즈니스 협력을 추진한다. 한중일 자유무역협정을 가속화하고, 중국-유럽 투자협정 협상을 가속화한다. 중국-러시아 전략적 사업협력을 심화하고, 중국-러시아-유라시아 경제파트너 관계협정 협상을 시행한다.

### (9) 비즈니스 환경의 개선

무역편리화 수준을 더욱 향상시켜 WTO의 「무역편리화협정」 B류 조치의 실행을 가속화한다. 국제무역 ‘단일창구’건설을 심화하여 연말까지 주요 업무에 응용률 100%를 실현한다. 대외무역관리시스템을 더욱 최적화하여 주요 문제 상품에 대해 거시적 관리와 모니터링 시스템을 완비한다. 화물 수출입 행정허가의 노폐이퍼를 전면



## CONTENTS

- ▶ 통계로 보는 중국 : 중국 18개 자무구 지역의 GDP 현황
- ▶ 이슈 포커스 : 2019년 중국 자무구 해운·항만물류 동향 [1] - 지역 범위 확대와 네거티브 리스트 변화를 중심으로
- ▶ 동향 & 뉴스

실시한다. 통상구 요금수취목록 공시작업을 철저히 하여 항만과 터미널 비용을 낮춤으로써 기업의 비용을 절감한다. 자유화 추진으로 지속적으로 외자시장진입을 완화하고, 산업의 향상과 대외무역 발전에 외자가 선순환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 (10) 정책지지 확대강화

무역정책의 이행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부가세 개혁과 입법을 종합하여 점진적으로 수출세금환급 시스템을 최적화한다. 금융기구의 금융혁신과 다양화 종합화된 서비스 제공을 지지한다.

종산은 일전에도 다음과 같이 언급한 바 있다. 이 다음 단계로 과학기술혁신의 강화, 제도혁신, 모델혁신, 업태혁신을 통해 일반무역을 강화하고, 가공무역을 향상시키고 동시에 적극적으로 수입을 확대하고, 서비스무역을 발전시키며, 대외무역 경쟁의 새로운 요소를 육성해야함을 강조했다.

<출처 : 上海证券报, 2019.10.24.>

## 3

하역 효율이 높을수록 집안 시간이 길다, 컨테이너터미널은 자동화를 추구해야 하나?

세계 항만 물동량이 해마다 증가하고 기계설비의 자동화 수준과 하역 효율 역시 점차 향상되고 있는 가운데, 과연 컨테이너선의 집안 시간은 그만큼 단축됐을까? JOC사의 항만생산력 자료 분석에 따르면, 터미널 효율은 다소 향상됐으나 2019년 상반기 컨테이너선의 항만 체류 시간은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 이 수치는 세계 순위 10위권에 꼽히는 7개의 컨테이너 정기선사가 제공한 것으로, 455개 항만을 매년 약 200,000회 집안, 물동량 3.5억 TEU 이상을 수행한 선박의 자료가 포함되어 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바쁜 63개 항만 중 (분석 자료 중 모든 항만의 62%와 모든 컨테이너터미널의 73% 차지) 5,000TEU 이상 선박의 매회 평균 항만 체류는 26시간이다. 2018년 동기간과 비교하여 이 63개 항만의 평균 집안선박의 사이즈는 3.4% 증가했고, 평균 단일선박 작업량은 전년대비 7.2% 증가했다. 이용률과 해운동맹 네트워크 합리화를 통해 항만 집안수량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또한, 미교부 상태의 선박 용량 모두 현재 평균 수치보다 높으므로 향후 몇 년간 이러한 수치는 계속될 것이다. 선박의 항만 체류 시간 중 81.5%가 컨테이너 처리에 사용되고 있어 평균 단일선박 작업량은 집안 총 소요시간을 결정하는 관건 요소이다.

분석 자료를 보면, 전체적으로 1,000 moves 이하 선박의 집안작업 중 선박이 항만에 머무는 총 체류 시간은 0.1% 감소했고, 항만의 평균 단일선박 작업량은 0.4% 증가하여, 상대적으로(평균 단일선박 작업량 가중에 따라) 0.5%의 시간이 단축됐다. 지역으로 나뉘보면, 북유럽의 주요 항만 선박 체류 시간은 4.4% 감소, 평균 단일선박 작업량은 0.8% 증가, 상대적으로 효율은 5.1% 향상됐다. 라틴아메리카 주요 항만은 상대적으로 효율은 4.4% 증가했으나, 지중해 주요 항만의 평균 단일선박 작업량은 6.1% 감소했고, 선박의 항만 체류 시간은 2.2% 증가, 전체 효율은 8.8% 감소했다.

1,001~2,500 moves 선박의 집안작업 중 평균 단일선박 작업량은 1.7% 증가, 선박 실제 체류 시간은 전년 대비 0.7% 증가로 상대적으로 효율이 1% 향상됐다. 북유럽은 재차 7% 선박 체류 시간 감소로 1위를, 중동과 인도가 4% 감소로 그 뒤를 이었다.

2,500 moves 이상 선박의 작업 중, 선박 실제 체류 시간은 0.1% 증가했고, 평균 단일선박 작업량은 1.2% 증가했다. 상대적으로 효율은 1.1% 향상됐다. 중동과 인도의 선



## CONTENTS

- ▶ 통계로 보는 중국 : 중국 18개 자무구 지역의 GDP 현황
- ▶ 이슈 포커스 : 2019년 중국 자무구 해운·항만물류 동향 [1] - 지역 범위 확대와 네거티브 리스트 변화를 중심으로
- ▶ 동향 & 뉴스

박은 상대적으로 체류 시간이 8.1% 감소했으나 북유럽은 7.4% 증가했다. 북미의 평균 단일선박 작업량은 8.7% 감소했고 체류 시간은 0.2% 증가했다.

터미널 작업효율은 대체로 다음의 2가지 요소로 결정된다. 바로 배치된 안벽크레인 수량과 1대당 안벽크레인이 처리하는 컨테이너의 수량이다. 2018년 동기간과 비교, 전체적으로 2019년 상반기 1대당 안벽크레인이 처리하는 컨테이너 수량은 0.6% 향상됐다. 조사 대상의 63개 항만 중 평균 1대당 안벽크레인의 매시간 처리량은 25.4개의 컨테이너였다. 안벽크레인 증가가 평균 단일선박 작업량보다 더디므로 평균적으로 1대당 안벽크레인이 더욱 많은 컨테이너를 처리해야 해서 이는 선박의 항만 체류 시간을 연장시키는 원인이 됐다.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상반기 1,000 moves 이하 1회 선박의 접안작업에 있어 안벽크레인 수량은 전년 대비 0.2% 하락, 매회 평균 1대의 안벽크레인은 270개 컨테이너를 이동시켰다. 1,001~2,500 moves 규모의 접안작업에는 안벽크레인 수량이 1.2% 하락하여 1대당 안벽크레인은 매시간 461개 컨테이너를 처리해야 했다. 2,001~3,000 moves 규모의 접안작업 중 안벽크레인 수량은 0.1% 증가로 안정세를 유지하여 1대당 안벽크레인은 평균 602개 컨테이너를 처리했다.

그러나 야적장 하역 효율이 향상되지 않은 상황에서 안벽크레인의 수량 증가만으로는 생산율의 대폭 상승이나 선박 접안 시간의 감소라는 효과를 가져오기 힘들 것이다. 야적장의 처리 능력 또한 터미널의 전체 효율과 생산능력에 영향을 준다.

자동화 터미널은 생산율을 높이는 특효약인가? 연구 자료의 결과는 이를 부정하고 있는 듯하다. 항만은 더욱 높은 하역 효율을 추구하는 것 외에 새로운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선박 접안 시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출처: 港口圈田篇, 2019.10.23.>

## 4 저장 국제 선박 LNG 발전 촉진을 통해 '해상대통로' 가속화 추진

10월 18일, 저장(浙江)성 저우산(舟山)시에서는 제3차 유상(油商)대회 기간 동안, 국제 선박 LNG 발전 포럼(이하 '포럼')을 개최되었다. 액화천연가스(Liquefied Natural Gas, 이하 'LNG'로 약칭함)는 무색, 무취, 무독성, 무부식성 등 장점으로 인해 지구상에서 가장 깨끗한 화석 에너지이다. 아울러 IMO 2020년부터 선박 유황 함량 축소 규제를 곧 시행할 예정이어서 LNG는 전 세계 에너지 시장에서 인정을 받았다. 이번 제3차 세계 유상대회는 저장성인민정부가 주관하고, 저장성 인민정부 자유무역 시험구 업무협동회의관공실, 중국(저장)자유무역시험구 관리위원회가 주최하였으며, 중국인민공화국 사무부, 중국인민공화국 관세청, 국가에너지국이 함께 후원했다.

포럼에서는 선박 LNG 발전의 "정책, 기술 및 시장"을 주제로 국제 선박 LNG의 발전 기회 및 추세에 대한 의견교환이 이루어졌는데, 중국 정부는 저우산 국제 선박 LNG병커링 건설을 추진하여, 저우산 해사서비스 종합적인 실력을 제고하여, 국제 브랜드 영향력을 확대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중국교통부 수운국 시에만잉(解曼莹)전 순시원(巡视员)은 현재 국제사회에서 에너지 절감 및 오물 배출 감소 표준에 대한 날로 엄격해지며, LNG는 친환경 에너지로 아주 넓은 시장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글로벌 LNG동력선은 급속 발전기이므로 중국은 이번 발전 기회를 잘 잡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중국 저장성은 에너지 소비가 많은 지역으로 LNG 시장에서 중요한 지위를 확보하고 있다. 저장성은 자유무역시험구(이하 '자무구'로 약칭함) 설립 2년째, '1중심, 3기지, 1시험구' 건설을 통하여 국제 원유거래, 석유가스 저장운송 및 석화 등 분야에서



## CONTENTS

- ▶ 통계로 보는 중국 : 중국 18개 자무구 지역의 GDP 현황
- ▶ 이슈 포커스 : 2019년 중국 자무구 해운·항만물류 동향 [1] - 지역 범위 확대와 네거티브 리스트 변화를 중심으로
- ▶ 동향 & 뉴스

일정 성과를 거두었다. 자무구는 LNG 수입, 저장, 분류, 운송, 병커링 등 분야에서 글로벌 LNG 시장체계에서 중요한 지위를 확보되었으며, 국제무역 발언권 및 영향력을 더욱 확대하였다.

중국 친환경 에너지 가장 큰 소매상 중의 한 신오가스(新奥能源)그룹 해사서비스부서 리광(李光) 총경리는 국제 LNG병커링 산업이 여러 업계 전문가들과 함께 협력을 통해 동맹을 형성하고 나서 향후 산업 발전 방향을 확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모제핑(毛江平) 저우산시 인민정부 부시장은 다음 단계에서 저우산이 선박용 LNG 시장을 전면적으로 확대하여, LNG수입, 저장, 운반, 병커링 등 업무 능력을 지속 제고시켜, LNG 해 상대통로 건설 가속화 추진하여, 국제 LNG병커링 중심지로 건설할 것임을 밝혔다.

<출처 : 中国新闻网, 2019. 10. 21.>

## 5 중국 최초 해운보험요소 거래 플랫폼 운영 시작

최근 중국 최초 해운보험요소거래 플랫폼이 광저우 난사(南沙)에서 정식 운영을 시작했다. 이 플랫폼은 웨강야오 대만구(粤港澳大湾区, 광둥성, 홍콩, 마카오의 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구상) 해운보험 상품 판매자들에게 등록, 거래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보험 가입자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보험 가입, 결제, 보험증권 등을 처리할 수 있다.

2019년 2월 18일, 중공중앙, 국무원은 「웨강야오 대만구(粤港澳大湾区)」에서 정부가 난사 해운금융, 항공 및 선박 리스 등 특색 금융을 지원하여, 국제해운보험 등 혁신형 보험요소 거래 플랫폼 구축하는 것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해운보험요소 플랫폼은 상해 보험거래소, 광저우 해운거래소, 중국인민재산보험주식유한회사(中国人民财产保险股份有限公司) 광저우지사, 중국평안자산보험주식유한회사(中国平安财产保险股份有限公司) 광저우지사, 중국태평양자산보험주식유한회사(中国太平洋财产保险股份有限公司) 광저우지사, 중국대지자산보험주식유한회사(中国大地财产保险股份有限公司) 광저우지사 등이 함께 구축했다.

중국은행 보험감독관리위원회 광둥감독관리국 류세생(刘学生)부국장은 이번 해운보험요소 플랫폼이 중국 최초 온라인 해운 보험 플랫폼이라고 밝혔다. 다음 단계의 해운 보험 플랫폼은 고객 관리, 신고 및 배상 및 다 업종 데이터 통합 등 기능 등을 구현할 것이다. 이 플랫폼은 난사 해운보험업의 발전을 촉진하는 동시에 해운보험기관, 인재, 자금, 정보 등 요소 자원이 집결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해운보험요소 거래 플랫폼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웨강야오 대만구 혁신형 해운보험 업무 R&D를 통해 대만구 해운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고 있다. 이와 함께 해운보험요소 거래 플랫폼이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4대 요소를 충족시켜야만 한다. ① 내하 선박에 초점을 맞추어, 거래 상품에 대한 포지션을 확실하게 잡아야 한다. ② 온라인 보험증권 처리를 실현하고, 거래 방식을 혁신해야 한다. ③ 외부 데이터 도입을 통해 해운산업 난점을 해결해야 한다. ④ 점차적으로 기능을 개선하여, 제품 업그레이드를 실현해야 한다. 이번 플랫폼은 상해보험거래소가 “보험+과학기술” 방식을 이용해서 대만구 건설 지원하는 중요한 조치이다.

광저우 난사항은 계 제5위인 광저우항의 주요 항구로 웨강야오 대만구 지리적 중심에 위치하고, 국가신구, 자유무역시험구, 웨강야오 전면 협력 시범구에 속해 있다. 2018년 난사항구 컨테이너 물동량은 1,566만 TEU로 전년 동기대비 11.4%를 성장했고, 자동차 물동량은 100만 대를 기록했다. 또한 글로벌 해운선사 COSCO SHIPPING BULK 등 비롯해 7,100여개 해운·물류기업이 있으며, 크루즈 출입국 여객 수가 전국





## CONTENTS

- ▶ 통계로 보는 중국 : 중국 18개 자무구 지역의 GDP 현황
- ▶ 이슈 포커스 : 2019년 중국 자무구 해운·항만물류 동향 [1] - 지역 범위 확대와 네거티브 리스트 변화를 중심으로
- ▶ 동향 & 뉴스

3위인 동시에 전국 자동차 병행수입 제2대 통상구이다.

<출처 :中国青年报, 2019. 10. 21.>

### 6

## 자연자원부와 국제해저관리기구, 합동 교육훈련·연구센터 설립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

10월 18일, 자연자원부(국가해양국)는 베이징에서 국제해저관리기구와 「합동 교육훈련·연구센터 설립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 양해각서는 국제해저관리기구가 'Host Country Agreement'를 제외하고, 다른 구성국과 체결한 최초의 협력 양해각서이다. 이 양해각서에 따라, 자연자원부(국가해양국)와 국제해저관리국이 중국에서 합동 교육훈련·연구센터를 설립하게 된다. 이 센터는 중국 칭다오에 위치한 자연자원부 국가심해기지관리 센터에 설립될 예정이다.

이 합동센터는 국제사회, 특히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심해에 관한 과학, 기술, 정책 교육과 연구를 지원해준다. 개발도상국 관계자에게 심해관련 과학, 기술과 관리에 관한 업무 교육훈련을 제공해주고, 심해 채광의 발전방향과 심해기술의 발전추세 대한 연구를 통해 관련 정책과 법규의 제정을 위해 참고할 만한 근거를 제시해 줄 것이다. 이에 국제해저분야에서 중국과 개발도상국가와의 협력과 교류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엔 국제해양법 협약」은 각국과 주관 국제조직은 “과학자료와 정보에 관한 교류 및 해양과학연구로 얻은 지식정보의 양도를 적극적으로 촉진하고, 특히 개발도상국과의 교류와 양도를 중요시해야 하며, 개발도상국가의 과학기술자를 위한 적절한 교육훈련 제공을 통해 개발도상국가의 자주적으로 해양과학연구 진행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자연자원부와 국제해저관리기구가 합동센터를 공동 수립하는 것은 「유엔 국제해양법 협약」을 이행하고, 중국의 '공동상의, 공동건설, 공동향유'의 발전이념을 실천하여 글로벌 해양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이다. 이는 중국이 개발도상국가의 건설능력 제고 및 '인류운명공동체' 구축 추진을 위한 적극적인 기여이며, 중국이 가장 큰 개발도상국가로서 책임을 이행하고자 하는 태도를 보여주었다.

또한, 이번에 베이징센취하이테크개발회사(北京先驅高技术开发公司)와 국제해저관리기구는 다금속단괴 탐사에 관한 계약을 맺었다. 베이징센취하이테크개발회사는 중국대양광산자원연구개발협회와 중국우광그룹회의(中国五矿集团公司)를 이어 3번째로 국제해저탐사 계약을 맺은 기업이다. 향후 15년 동안에 이 회사는 「중국 심해저 자원 탐사개발 법」에 따라 탐사계약의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고 다금속단괴 자원에 대한 탐사·평가, 환경조사와 평가, 채광기술 연구개발, 기술경제 평가 및 개발도상국가 과학기술자를 위한 교육훈련을 전개할 것이다.

이 계약된 광구는 서태평양에 위치해 있고, 면적은 약 7.4만km<sup>2</sup>에 달했다. 베이징센취하이테크개발회사는 이 구역에서 독자 탐사권과 우선 개발권을 가지고 있다. 이 회의는 작년 12월 24일에 병행방식(Parallel System)에 국제해저관리기구에게 동등한 상업적 채취가치를 지닌 광구 2개를 신청했다. 국제해저관리기구는 올해 7월 15일에 개최된 제25차 회의에서 이 신청을 통과시켰으며, 그 중 하나는 베이징센취하이테크개발회의 탐사구역으로 하고, 다른 하나는 국제해저관리기구의 보류구역(Reserved Area)으로 남는다.

<출처 : 中国海洋报, 2019. 10. 21.>